

20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4회초 1사 1루 때 KIA 최형우가 2점 홈런을 쳐내고 있다.

'연합뉴스

최형우, 1500 타점…KBO 역사가 되다

2008년 4월 1일 LG전에서 시작 ··· 2003경기 만에 대기록 방출· 막노동 사연 재조명 ··· "42살까지 야구 하는 게 목표"



'방출신화'의주인공최형 우가 KBO 새로운 역사가

최형우는 지난 20일 한화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즌 7차

전에서 KBO리그 역대 최다 타점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4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최형 우는 0-1로 뒤진 4회초, 1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 에 들어섰다. 그리고 최형우는 한화 선발 한승주 의 145km 초구 직구를 가운데 담장 밖으로 넘기면 서 투런포를 장식했다.

지난 17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1498 타점을 채웠던 최형우는 이 홈런으로 두산 이승엽 감독(1498타점)을 따돌리고 KBO리그 역대 최다 타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동시에 '1500타점'이라 는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고지를 밟았다.

- 10 G() 1500타점. 2003경기 만에 이룬 1500타점.

대기록은 2008년 4월 1일 LG전에서 시작됐다.

알고보면 뒤늦은 시작이었다.

최형우는 전주고를 졸업하고 2002년 삼성 라이 온즈에서 포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프로 첫 해 4경기에 나왔던 최형우는 2003년에는 1군 단한 타석에도 서지 못했다.

그리고 2004년 두 경기에 나와 두 타석에 섰지 만 결과를 내지 못했고, 팀에서 방출됐다. 막노동 까지 하면서 이를 악물었던 최형우는 경찰야구단 을 통해 인생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야구단 소속으로 2군 7관왕에 오르는 등 실력을 보여준 그는 많은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고, 삼성에 재입단해 진짜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2008년 다시 선 1군 무대, 최형우는 LG전 홈런 으로 만든 2타점을 시작으로 16시즌 동안 1500타 적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한 시즌도 빠지지 않고 50타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함'을 보여준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39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 까지는 KBO 역대 3번째 5년 연속 100타점 기록도 장식했다.

'100억 사나이'로 2017년 KIA와 FA 계약을

맺은 최형우는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으로 모범 FA로 꼽혔다. 그리고 2020시즌이 끝난 뒤 최형우는 계약기간 3년, 총 47억원에 KIA와 인연을 이어갔다.

KIA에서 589타점을 만든 그는 2루타 기록도 고향팀에서 새로 썼다. 최형우는 지난 4월 23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2루타를 기록하면서 이승엽 감독(464 2루타)의 기록을 넘어섰다.

2021년 망막 이상으로 고전했던 최형우는 지난 시즌 132경기에 나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올 시즌 에는 시즌 초반부터 뜨거운 타격을 과시하면서 20 일 경기까지 0.313의 타율로 9홈런, 39타점을 생 산해냈다. 4월 21일 삼성전에서는 2-4로 뒤진 9회 말 무사 1·2루에서 왼쪽 담장 밖으로 공을 보내면 서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하다보니 됐다"며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 던 최형우지만 공식적으로 욕심을 내온 유일한 기 록은 '최다 타점'이다. 시원한 홈런으로 최다타점 새 주인공이 된 최형우는 '42'라는 또 다른 숫자에 도전한다. 올해로 41.

"42살까지 야구 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했던 최형우에게 2023년은 KIA와 약속한 마지막 시즌 이다. 여전히 뜨거운 타격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최형우가 KBO리그 첫 1500타점 주인공으 로 '42' 고지까지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휴식 끝 ··· 광주FC, 다시 순위 싸움

줬다.

24일 전북과 19라운드 홈경기



달콤한 휴식을 끝낸 광주 FC가 뜨거운 순위 싸움에 나 선다. 상대는 전북현대다.

광주가 24일 오후 7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 와 K리그1 2023 19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에는 꿀맛 같은 A매치 휴식기였다.

휴식기를 앞두고 벌인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 정경기에서 정호연의 선제골은 지키지 못했지만, 상대의 파상공세 속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면 서 승점 '1점'을 더했다.

앞서 3연승을 달렸던 광주는 대전전 무승부까지 FA컵 포함 6경기에서 무패행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7경기 연속 무승으로 잠시 주춤 했던 광주의 순위 싸움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번 휴식기는 '5강 진입'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 이 됐다.

무더위가 찾아온 6월, 최강 전력을 가진 전북과의 2연전에 앞서 광주는 전열을 가다듬었다. 광주는 24일 19라운드 경기에 이어 28일에는 전북 안방으로 가서 FA컵 8강 경기를 갖는다.

연달아 전북을 만나는 광주는 20라운드 상대로 1위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도 앞두고 있다.

강 팀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는 만 큼 광주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은 승점 2점 차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 도 중요하다. 광주는 18라운드 까지 7승 4무 7패 (승점 25)를 기록,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전북은 8승 3무 7패(승점 27)의 전적으로 5위에 랭크됐다.

전북은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지만 최근 3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다. 문선민, 송민규, 구스타보, 김진수, 조규성 등 화려한 스쿼드도 눈에 띈다.

역대 전적에서도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14승 5 무 1패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 다

휴식 뒤 쉽지 않은 승부가 기다리고 있지만 광주

는 뜨거운 화력을 기대하고 있다. 팀 전력의 핵심이자 A매치 기간 '대표선수'로 뛰었던 정호연과 아사니가 최고의 몸상태를 보여

정호연은 '황선홍호'에 승선해 중국과의 친선경기 두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을 했다. 1차전에서는 금호고 선배 엄원상(울산)의 골을 돕기도 했다. 알바니아 대표로 나섰던 아사니도 몰도바와의 유로 2024 예선에서 기분 좋은 골을 장식했다.

여기에 지난 7일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골에 이어 두 번째 골까지 연달아 선보였던 토 마스도 절정의 기량으로 다음 골을 준비하고 있 다. 두현석과 김한길 등 측면 수비수들의 컨디션 도 좋다. 안영규와 티모의 철벽 수비도 든든하다.

광주는 강팀들과의 연전을 통해 경쟁력을 보여 주고 결과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전 북을 꺾고 승리로 승점 사냥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못 이기는 클린스만 축구 … 우려가 커져 간다

엘살바도르와 1-1 무승부

공격적이고 재미있는데 못 이기는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표 축구'에 대해 느꼈을 첫인상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6월 평가전 2경기에서 1무 1패라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성적을 내며 '무승 행진'을 이어갔다.

16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치른 페루전에서 클린스만호는 전반 11분 만에 선제 실점한 끝에 0-1로 졌다.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 경기에서는 후반 4분 황의조(서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비졌다. 후반 42분 프리킥 상황에서 알렉스 롤단에게 동점골을 얻어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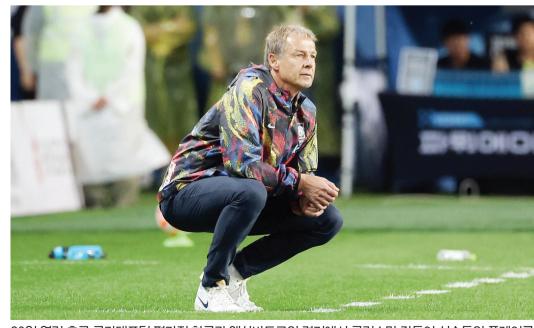
특히 직전 일본전에서 한 명이 일찍 퇴장당한 끝에 0-6으로 참패한 것을 포함해 5연패 중이던 국 제축구연맹(FIFA)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경기만큼은 한국(27위)이 '낙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를 모으던 터였다.

하지만 클린스만호는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로 몸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손흥민(토트넘)까 지 후반에 투입했는데도 무승부에 그쳤다.

'충격적'이라고까지 평가할만한 결과다.

지난 3월 A매치부터 팀을 지도한 클린스만 감독이 4경기(2무 2패)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도 커진다.

한국은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에서 각각 14차 례씩 슈팅을 시도했으나 1골에 그칠 정도로 골 결 정력이 안 좋았다. 상대의 빠른 공격이나 세트피 스 상황에서 당연히 마크해야 할 선수를 놓치는 등



20일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비 집중력에도 문제를 보였다.

무어보다도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좀처럼 물러서는 법이 없는 클린스만 감독은 시종일관 공격적으로 교체 카드를 써서 팬들의 흥미를 돋웠다. 엘살바도르전에서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톱 공격라인을 가동한 것이 선제골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골'에 그치며 '빈공'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됐다.

단순히 공격수를 많이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승

리를 거두기에 부족했던 셈이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클린스만호의 축구에 대해 "손흥민, 이강인(마요르카) 등 선수 개개인 은 눈에 띄지만, 그 안에서 질서나 콘셉트, 전술적 인 의도 등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찬하 해설위원 역시 클린스만호가 너무 '무계 획적인' 축구를 펼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클린 스만 감독은 '공격축구를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좀 더 뚜렷한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전남, 공격수 미키치 영입·광양제철고 GK 김현석 계약

전남드래곤즈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강화했다.

전남은 21일 새 외국인 선수로 크로아티아 출신 의 공격수 레오 미키치를 영입했다.

180cm 75kg의 다부진 체형인 미키치는 스피드 와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러다. 볼 연계와 공간 침 투 능력도 뛰어나다.

미키치는 21-22시즌과 22-23시즌에 SV RIED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부)에서 56경기에 나와 7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

미키치는 "매우 설레고 기쁘다. K리그와 전남드 래곤즈를 많이 듣고 보았다. 전남에 입단하여 홈 경기장에 와보니 더욱 설레고 프로페셔널한 것 같 다. 팀이 목표하는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입단 소감을 언급했다.

미키치로 공격력을 강화한 전남은 '미래'도 영입했다.

전남은 "광양제철고 3학년 GK 김현석(18)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준프로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남 구 단 최초의 고등학생 영입 사례다.

185cm 80kg의 김현석은 뛰어난 반사 신경으로



크로아티아 출신 공격수 레오 미키치(왼쪽)와 광 양제철고 골키퍼 김현석.

1대1 방어율이 좋고, 판단력이 우수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현석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너무 기쁘다. 친구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받았고 지도해 주신 감독님과 코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이며 프로데뷔를 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나를 항상 지지해주 시는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